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8호 [루체 제2332호] 주체100(2011)년 1월 8일(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최대의 진격속도로 앞으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용기백배, 신심스레 새해 첫 전투에 떨치신 우리의 총진군대오에 노래 《승리의 길》이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수령님 따라 시작한 혁명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할 것이라는 불타는 맹세와 비상한 각오로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끓여 넣고 있다.

올해는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해이다.

새해전야에 오종홉 7번째 초호를 수여 받은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의 훈편을 보아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대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으며 올해의 총공격전의 승리를 예고하는 최후승리를 온 나라를 진감하고 있다.

우리는 공동사설과 김철로동제국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여 맹렬한 공격전을 벌려나감으로써 올해에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기어이 결정적 전환을 안아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사상은 공적사상이며 혁명방식도 공격방식이다. 우리 당은 언제나 내내 내내 공적적으로 세상을 들뜨다놓는 기적을 창조하며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 왔다. 혁명은 공적전이며 일단 목표를 내세운 다음에는 순간의 멈춤도 없이 공격 또는 공격해나가는 최후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는것이 우리 당의 계속혁명사상이고 투쟁지론이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우리 당의 완강한 공격전선의 구현이며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면적인 집중공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의 땅 강선에서 지어 주신 대고조의 봉화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혁명적전군은 드디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눈앞에 바라보는 결정적인 계선에 진입하였다. 지난 2년간의 대고조전과정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따라 모든 전선에서 10년, 20년을 앞당기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조국청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거창한 사변들을 편이여 터쳐올렸다.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인민경제의 모든 기간공업 부문들이 소리치며 일떠서고 경공업과 농업전선에서 비약의 도약과 마른뉘는 드세한 공격전으로 최단기간에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고조주장과 전략의 빛나는 승리로 된다. 지금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비길데 없이 강하며 우리에게는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다제단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경제적전대와 과학기술력량이 다 마련되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총공격전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대고조의 진격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갈 때 이 땅에서 강성대국건설의 승전고소리가 높이 터져오르게 될것이다.

우리는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올해에 모든 전선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려나가는 한다.

올해의 총공격전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이다.

올해는 주체년으로 빛나는 김일성조선의 100년 역사를 총화하게 되는 의미 깊은 해이다. 우리 조국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무궁할 김일성조선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어머니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을 하루빨리 강성대국으로 세계에 높이 떨치는것보다 더 중대하고 성스러운 혁명임무는 없다. 우리가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승리하면 단세로 높이 울려야 존엄과 영광, 승리와 기적으로 아로새겨진 김일성조선의 성스러운 100년 역사를 빛나게 장식할 수 있으며 다음에 어머니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긍지높이 멋있게 맞이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넘원인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의 결정적도약과 바로 올해의 총공격전에 달려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머니수령님의 품속에서 끌어진 행복을 누려왔고 수령님께서 세워 주신 사회주의조국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혁명가로, 투사로 성장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이며 아들딸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얼마나 충직하게 받들어 수행의 유훈을 어떻게 실현해 오았는가를 세계앞에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 줄 때는 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 유훈은 추호도 어길수 없는 우리 당의 강령과 같다.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어머니수령님의 한평생의 넘원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고 우리 수령님께 기어이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드려야 한다.

올해의 총공격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령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일대 진격전이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머니수령님의 애국유산인 우리 조국과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의 부강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전고계신다. 2년간의 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어 주신 데로부터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폭우와 눈보라를 헤치시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대고조전장들을 총횡무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실록은 역사에 전무후무한것이 다. 천만군민의 정신풍을 최대로 폭발시키시며 대비약의 지름길을 열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강행군에 의하여 조국역사에 일찌기 없었던 전지구적 대고조시대가 펼쳐지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대경사들이 편이여 일어난수 있었다.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대화와 협상, 접촉을 통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년대기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확고하고도 원칙적인 릋 표를 명백히 밝히고 방도적 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였다.

우리 금속공업성인의 정무원들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동하면서 대고조의 승리로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은 공격적으로 일관되어 있다. 일단 결심하고 목표를 내세우면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전진하며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전략전술로 시련과 난관을 타개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상한 공격정신의 바탕에는 이 땅에서 하루빨리 어머니수령님의 넘원과 리상을 꽃피우시려는 열화와 같은 충정이 끓어 넘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비상한 맹세와 각오를 안고 장엄한 대고조전군을 시작한 우리에게는 순간의 자만이나 담보도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뜻과 의지로 일심일뜻의 천만대오가 심장을 잃고 장군님의 강행군복이 우리의 전진의 보폭으로 될 때 우리의 진격속도는 최대로 빨라지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또다시 세계를 놀래우는 사변들이 편이여 창조되게 될것이다.

올해의 총공격전은 제국주의의 온갖 도둑과 반공화국적행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매성을 더 높이 떨치기 위한 결사전이다. 지금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를 군사정치적으로 압박하며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이고 있다. 현실은 제국주의와는 끝까지 초강경으로 맞서나가는 우리의 원칙적립정이 정당하다는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적들의 도적이 악랄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건설의 진격속도를 최대로 높여 혁명적공세로 맞받아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투적기질이다.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서의 승리와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안아왔고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박책동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영웅적투쟁으로 쳐물어냈다. 우리 수령님 들려 주신 백두의 붉은기를 영원히 높이 추켜들고 장군님 따라 백승떨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산악처럼 언세다. 우리는 올해의 총진군에서도 주저나 담보도 없이 공격, 공격 또 공격해나가는 조선인민의 기백과 본래를 힘있게 파시며 대고조의 합성드높이 최후승리의 활로를 열어제끼야 한다. 전체 인민이 백철불굴의 의지를 발휘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담한 공격전을 벌려나갈 때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은 더 높이 떨쳐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당의 전투적호소가 천만군민을 새로운 대전적격으로 부르고 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정병들, 인민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오늘의 총공격전의 진격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감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려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의 총공격전의 전투에 서세시기에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나 신심과 락관을 간직하고 역 세계 싸우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치이며 장군님의 대고조전략은 대담한 공격방식에 기초한 필승의 전략이다. 시련과 난관을 예뉘고 인제나 공격정신으로 맞받아나감으로써 장군님의 특출한 령도실력은 이 땅에서 선군조선의 대변명기가 펼쳐지게 한 근본원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는 오늘도 비상한 애국의 열정으로 대고조전군을 진두지휘 하시며 김일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 나가게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전략은 투쟁속에서 축적된 우리의 잠재력,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설계된 가장 과학적인 전략이며 장군님께서 펼쳐 오고 있는 공격전은 승선이 확고한 투쟁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은 곧 승리이라는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장군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총공격전의 참전각로서의 영예를 떨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 속도를 따라 하루를 백날, 1년을 10년 맛있게 내달리며 최대의 진격속도, 일당백속도를 창조한 최첨발진소의 군인건설자처럼 올해의 총공격전의 순간순간을 수령님 사용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현지지도단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도움을 빛내며 언제나 대고조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전체 인민이 주체의 신념과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기어이 자기 힘으로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은 오늘의 대고조전군승리의 근본담보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혁명하는 법을 배우고 백철불굴의 정신풍을 키운 영웅인민이다. 천만군민의 강한 정신풍이 활화산처럼 분출될 때 이 세상에 불가모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후손담배 투쟁하며 창조하자!》는 구호가 기발처럼 울려나오야 한다. 누구나 원대한 뜻과 리상, 드세 배짱과 당당, 난단도 으메 헤쳐가는 락관투쟁정신을 지니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제 힘을 믿고 자제의 토대와 령향을 남김없이 동원한다면 그 어디에서나 사회주의승리의 만세노래가 높이 울리게 할수 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다시한번 공업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최고의 생산실적을 올리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식량, 전력,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형부문들과 편반부문들을 이르는 경공업의 대고조를 실질적으로 뒤받침할수 있게 당이 제시한 생산목표를 기어이 정령하여야 한다. 모든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 일군들이 차지해야 할 위치는 전진하는 공격시렬의 최전방이다. 전투승리에서 지휘관의 위치가 중요한

최첨단돌파전은 대고조전군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근본원천이다. 대고조의 폭풍시대를 열어놓은 비약의 원동력은 다름아닌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에 있다.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 쥔 경험에 토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서 내달리자는것이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최첨단돌파사상이다. 거창한 대고조실력은 우리에게 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쥐면 남들이 걸은 백결을도 한걸음에 뛰어넘을수 있고 세계적인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 대고조시렬의 주인공이라는 관념과 릋장을 지니고 당이 제시한 첨단목표를 정령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사상과 정신풍의 강자뿐 아니라 최첨단과학기술의 강자가 되겠다는 높은 민족적자존심, 첨단과학기술전선에서도 적들을 제압하고 영예로운 승리가 되겠다는 자신만만한 투지가 차고넘쳐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이미 시작된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생산과 경영, 새 제품 및 기술개발을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연구와 자로기지속성, 인제동원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공업의 위력을 높이 펼친 그 열정, 그 기백으로 세계를 놀래우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성과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는 기풍을 세우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내달려야 한다. 지난 기간 당의 령도밑에 방직, 식료, 일용, 신발공업을 비롯하여 경공업부문에 마른뉘는 생산상태와 잠재력은 우리 인민의 생활수준을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울수 있을만큼 막강하다. 모든 경공업공장이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 지방공업부문에서 인민소비품생산혁명이 일어나면 그 어디에서나 사회주의승리의 만세노래가 높이 울리게 할수 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다시한번 공업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최고의 생산실적을 올리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식량, 전력,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형부문들과 편반부문들을 이르는 경공업의 대고조를 실질적으로 뒤받침할수 있게 당이 제시한 생산목표를 기어이 정령하여야 한다. 모든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 혁명의 지휘성원들, 일군들이 차지해야 할 위치는 전진하는 공격시렬의 최전방이다. 전투승리에서 지휘관의 위치가 중요한

것처럼 대고조공격전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위치와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올해의 불길을 지어 주신 첫날부터 오늘까지 공격전의 전투에서 천만군민을 이끌고 계신다. 우리 일군들은 이 땅에서 대고조의 폭풍시대를 안아오고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강이런 사변들을 편이여 펼쳐놓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공격정신, 강행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일군들이 설 자리는 책상머리가 아니라 들끓는 대고조전투장이며 일군들이 해야 할 몫은 당정책을 지지만 하는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결사판결해나가는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총공격전의 지휘자를 전투현장에 정하고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공동사설에 기초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투쟁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일관을 통이 크게 벌리며 모든 사업을 모가 나게,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당과 혁명, 조국앞에 지닌 책임감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며 당정책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자기 단위, 자기 지방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끝까지 책임지는 릋장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있게 해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는데서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전투적 환경에 맞게 당사업을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 올해공동사설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대중의 정신풍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은 백배로 강화되어 온 나라가 총공격전의 분위기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선전선동력량을 총동원하고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힘있는 당조직, 살아 움직이는 당조직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민은 자기를 믿듯 승리를 굳게 믿고 사는 영웅적인이며 폭풍이 사납다 해도 다른 길을 모르고 맞받아나가는 불굴의 인민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투에 높이 모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우리를 평명한 미래에도 이끌고 선군혁명의 폭풍우와 거창한 대고조전선에서 백배해진 정치군사적위력과 강력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기에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도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든 백두의 혁명정신을 구현한 드세한 공격전으로 올해의 대고조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빛나게 장식하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년대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의 결단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대한 반향

###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하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대화와 협상, 접촉을 통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년대기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확고하고도 원칙적인 릋 표를 명백히 밝히고 방도적 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시하였다.

우리 금속공업성인의 정무원들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동하면서 대고조의 승리로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기 위해 부강조국의 강령기등을 굳건히 다져나갈 의지에 충만되어 있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밑에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철생산체제를 완성하는 대승리를 안아왔다. 우리 들은 이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올해를 기어이 정령하였다. 그 실천을 위해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 때에 풀이주면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특히 대진군의 앞장에 선 김책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더욱 활

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겠다. 뿐만아니라 당의 과학기술중시리선을 틀어쥐고 기술계급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어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천리마강련합기업소와 보산철철소, 은골, 대명광산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금속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이 모두 부족한 일이 없다는 드세 배짱을 안고 철강재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

금속공업상 김 대 령

우리 당의 조국통일의지가 명백하게 천명된 공동사설을 받아안은데 이어 이번 련합성명에 걸한 조선노동군자동맹 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은 삼천리강산에 통일여량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할 줄은 결의에 넘쳐 이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통일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없는 민족이 될수없고 민족의 지상적의무이며 지상의 파업입니다.》

북과 남의 관계는 신뢰와 화해,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이번 련합성명의 제안 들에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은 민족의 의지와 념원이 뜨겁게 박차고 있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제의와 호소에 거세한 통일 열풍으로 화답해나서리라고 굳게 믿는다.

김일성사회주의혁명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김 철 혁

조롭게 풀려나갈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과 남의 농민들은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 강토를 자기들의 지혜와 슬기로 더 기쁘게 가꾸어 나갈수 있게 될것이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이번 련합성명에서 밝혀진 중대제안은 발표되자마자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6. 15 통일시대가 펼쳐졌던 지난 시기에 북과 남의 농민들은 통일대회도 하고 통일의 노래도 함께 부르면서 우리 겨레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내외에 널리 퍼시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남조선보수당국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정책에 의하여 북과 남의 농민들간에 후미계 흐르던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화와 협력의 길은 전면차단되는 가슴아픈 현실이 지속되게 되었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발표된 련합성명의 중대제안들에 응당한 호응을 표시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남녘의 농민들이 우리 북녘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밟아갈수 있도록 하겠다. 남조선당국과 동맹동맹 동맹위원회 위원장 리 명 길

### 애국의 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이 온 겨레를 평화와 통일으로 부르는 련합성명을 발표한 것은 격변하는 현실세의 흐름으로 보나 민족의 지향으로 보나 매우 시기적절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고 하루속히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

어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른 오늘의 엄중한 현실은 대결의 방법으로는 결코 북남관계를 해결할수 없으며 무력충돌과 전쟁학에 가져올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련합성명에도 지적되어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학에 녹아남것은 우리 겨레이고 어부지리를 얻었을은 외세이다.

슬기로운 우리 민족끼리 마

우를 안겨주고 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적통일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통일일 조국의 미래를 그 러며도 남다른 포부와 용을 안고있는 우리 청년들은 조국의 분열이 지속되는것을 원치 않는다. 특히 오늘의 북남대결과 긴장상태를 수수방관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초래될수 있다.

통일에국에 불라고 정의감이 강한 우리 청년들이 어찌 동족 사이의 대결로 민족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현실을 용납할수 있었는가.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타개해나갈데 대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의사와 지향을 담은 공명정대한 조지로 열렬히 지지 환영

# 천만의 심장에 불을 다는 백두산위인의 전설적강행군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에 기어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웅대한 목표를 안고 천만군민이 신심과 락판에 넘쳐 올해의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다.

아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둔 뜻깊은 이해를 위해한 거적과 위훈으로 빛내려는 불같은 결의에 첫시작부터 천리방선 초소들과 일터마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일본세는 과연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것인가.

그것은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같은 열정을 강 그리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고 헌신적인 현지지도의 길에 수놓아지는 무한한 사랑과 믿음이다.

우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끝없이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찬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있습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와 당창건 65돐을 민족적대경사로 맞이한 추억깊은 지난해의 나날들이 위대한 선군혁명장의 특출한 선군혁명령도와 더불어 우리의 가슴을 영광과 환희로 끓여받지 못하고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겠는가 하는 이 한가지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정초부터 연말까지 조국방위투쟁에 애국애민의 성스러운 자욱을 불어넣어 주신 불세출의 선군혁명장 김정일장군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거창한 투쟁의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온 나라를 흥행무진

하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자랑찬 승리로 고부추동하시였다.

지난해 12월 한달동안에만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시안의 경공업, 봉사기지를 비롯하여 현지지도하신 단위는 무려 30여개에 달한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우리는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가를 깊이 느꼈수 있다.

정녕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이 있어 최첨속도가 이 땅에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고 회한한 인민생활향상기지가 솟아나기 시작되었으며 최첨단과학기술의 기상이 나뉘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자립경제의 대승리가 마련되지 않았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이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세계적창조와無比의 힘을 안아오는 강성대국건설의 필승의 기지이다. 하기에 새해전투에 펼쳐나신 천만군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상은 그처럼 열화같은 것이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의 승업한 추억이 있다.

한밤중에 달리신 락원로의 천여 리 강행군길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한없이 자아로운 아버지령도자로 높이 모신 천만군민의 긍지와 행운을 더해주며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주제 98 (2009)년 2월 초 어느날 아침이었다.

수백㎞짜리 산소분리생산과 대형산소분리생산산안산을 세우느라 쫓고있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였다.

그이를 비운은 순간 도와 기업소의 일꾼들모두는 크나큰 행복에

목이 딱 매어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해지구의 여러 단위들을 정력적으로 현지지도하시는데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소식을 신문, 방송을 통하여 들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자신의 로고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꾼들과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후 생산현장으로 돌아서시였다.

열교환기작업장에 전시된 대형산소분리기부감도를 보아하시며 산소분리기생산에서 나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락원산소분리기공장은 산소분리기문제를 풀기 위하여 많은 품을 들여 꾸린 공장인데 산소분리기는 마땅히 이 공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지금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비료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있는데 대형산소분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 기업소의 비료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산소분리기를 제대로 만들어 보내주는가 보내주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며 일꾼들은 우리 장군님의 웅심깊은 뜻이 안져와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현대화는 곧 비료문제해결을 의미하며 나아가 식량문제, 먹는 문제와 직결되어있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한말씀에 락원로에 또다시 달려오셨던 것이다.

감동을 금치 못하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직도 북으로 향한 그이의 현지지도 일정이 많이 남아있었기때문이었다.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기때문에 함경남도에서 곧장 이 기업소로 왔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락원의 로동계급이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때 대한 과업을 무조건 집행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꾼들은 경애하는 그이께서 한밤중에 천여 리 강행군을 단행하신 승고한 의도와 뜨거운 로고가 다소나마 헤아려져 눈물을 적시였다.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리시며 새해 정초부터 조국방위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장군님께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가스화암모니아 생산공정을 꾸리고있었는데 제일 문제로 되는것은 대형산소분리기였다. 산소분리기가 없이는 생산공정을 아무리 현대적으로 꾸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하여 일꾼들은 토론하던 끝에 하루빨리 비료생산을 정상화하여 알곡생산에 이바지하자면 산소분리기를 제대로 만들어 보내주는가 보내주지 못하는가 하는것을 놓고 고민을 하였다.

그리하여 일꾼들은 토론하던 끝에 하루빨리 비료생산을 정상화하여 알곡생산에 이바지하자면 산소분리기를 제대로 만들어 보내주는가 보내주지 못하는가 하는것을 놓고 고민을 하였다.

락원로에 갑시다!

일꾼들의 놀라움은 너무도 컸다. 아직도 북으로 향한 그이의 현지지도 일정이 많이 남아있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일이 많다고 해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제일 중한 일로 여기시고 어떤 어려운 일도 로동계급과 토론히고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면 다 해결된다는것을 불조로 삼으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절연히 락원로로의 강행군길에 오르시었던 것이다.

동에 변형 서에 변형 락원산석천지도를 진행하시는 그이의 품모에 매혹되어 뜨거운 걱정을 금치 못하는 일꾼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혼연히 미소를 지으시며 락원을 믿고 가겠다고, 대형산소분리기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고 기업소를 떠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야심찬은 눈길을 일으키며 멀어졌으나 락원로 동계급에 대한 하늘같은 믿음의 말씀은 일꾼들의 심장을 흥행무진으로 울려 메아리쳤다.

진정 아버지수령님의 이면위원의 리념을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강행군의 순간순간을 가장 승고한 사랑으로 수놓아가시는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만 계시면 못내일 일이 없다는 신념과 배짱, 결사의 각오를 안고 락원의 로동계급은 끝끝내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어내려고야말았다.

오늘 내 조국은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적사실현지도, 불멸적사실강행군길을 따라 강성대국을 향하여 출발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오든도 절충한 선군혁명장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가 있는 한 반드시 만물이 꽃피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진다는것을 확신하며 혁명적대고조진군을 역세게 다그쳐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계성남

사람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수놓아지는 우리 장군님의 전신길에 만사람을 울리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많이 새겨지고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 최고사령관과 병사는 생사를 같이하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어느해 찬바람 몰아치던 날에 있는 일이다.

이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험한 산길을 넘나드리며 인민군대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 숙소에 돌아오신것은 밤이 퍼그나 깊었을 때였다.

일꾼들은 매는 저녁식사를 준비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어 수저를 들지 못하시였다. 낮에 찾으시였던 한 인민군부대에서 준비한 예술품공연을 보여주지 못했것이 마음에 걸리시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식사를 하실것을 간청드리는데 일꾼들에게 그 부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섭섭해하셨는지 모르시면서 이제라도 가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꾼들은 그이께 수백리 먼 길을 달려 방금 돌아오신것인데 이제야 좀 쉬셨으면 한다고 안타까이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한 일꾼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의 심정은 알만 합니다.

그러나 눈이 아무리 많이 내리고 밤이 깊었다 해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병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습니다. ...

일꾼들의 가슴속에서는 크나큰 걱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였다.

사람들은 그 깊은 밤 우리 장군님앞에 놓여있던 굵이굵이 전신길에 어떤 길이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것이다.

합계계 녀고넌은 흰눈덮인 고개길은 그 열마였고 손에 땀을 쥐고 아슬아슬한 길을 또 얼마나 오슬아슬하였던가.

하늘을 매우며 무너져듯 쏟아져내리는 눈속을 뚫고 캄캄한 어둠속으로 헤쳐가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밤길은 이 땅에 이어진 또 하나의 《초조길》이었다.

머나먼 눈길을 헤치고 부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곁사람이 모르는듯 시종 완히 웃으며 인민들의 공연을 보아주시였다.

눈내리는 깊은 밤에 부대에 찾아오시어 자기들의 소박한 공연을 보아주시며 그리고도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며 군인들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잡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대를 떠나실 때였다. 밤사이 얼마나 많은 눈이 왔는지 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더없이 마음이 가벼우신듯 유정한 눈빛으로 차창밖을 바라보고 계시였다.

그 시각 우리 장군님께서는 온갖 눈발이 쏟아져 내리는 밤에 강 그리 바치실것으로 하여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계시었던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체스쵸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6일 만수대의사에서 작별방문하여 온 마르틴 토포 주조 체스쵸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궁석용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함일혁명선열들의 백범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끝까지 받들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대성산혁명렬사용에서— 김진명 적음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도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락랑구역 남사, 정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락랑구역 남사, 정백남새전문협동농장 현지지도 40돐 기념보고회가 7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관개부문 일꾼들과 해당 단위 농업근로자들이 보고회들에 참가하였다.

보고회들에서는 락랑구역 남사사단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문문녀, 정백남새전문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정영기가 보고회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60 (1971)년 1월 7일 맨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몸소 농장들을 찾으시어 농민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주시고 눈덮인 포전들을 돌아보시며 토지정리를 잘하고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는 문제 등 농장사업을 잘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는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고 발달시키고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며 농촌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준 고귀한 지시도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 40년간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하고 빛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시 관철에 펼쳐나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생산계획을 완수하고 작업반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놓았으며 이날도 농장들이 선군봉화상과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쟁취하는 영예를 지녔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릴데 대한 올해공공사업의 전두초소마라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이 확고히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사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참담하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

고풍군 방성리당위원회에서

위대성을 보여주는 도서들과 당보에 실린 자료들을 가지고 독보와 해설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또한 문답식학습경연을 자주 조직하고 그 과정에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새해농사치리모 들끓는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꾼은 일침을 리용하여 우리 인민군대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와 영생탑, 현지지도표시비를 건립하고 문화주택과 락아스, 유치원, 종합편의시설 등을 훌륭히 일떠세워 농장들의 면모를 일신시켰다고 말하였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절세위인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어려있는 영광의 열도에서 일하는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켜나가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는 영예를 지녔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

오늘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것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고리이다.

올해공공사업에 밝혀져있는것처럼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으며 혁명적건설의 모든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모든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다.

지난 10여년동안에만 하여도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거대한 변혁이 이룩되었다.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 특별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만년대계의 토지정리와 자연호르몬식물경진법이 진행되어 농업생산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우리에게는 농업과학기술을 최첨단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는 잠재력도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모든 성과와 토대가 올해에 최대의 온이 나게 하는 여기에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공평도

발견시킬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예로부터 농사는 천지대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먹는 문제가 사할터인 요구로 제기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농사가 근본으로 된다 하는것이다.

농사를 잘 지어야 나라의 쌀독이 차오르고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된다. 농업이 주저앉으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모든 부문이 전진할수 없다. 그래서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고 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경공업을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격전선으로 내세웠다. 경공업부문이 인민생활향상대군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나가자면 농업생산에서 높은 성과가 이룩되어야 한다.

농업생산물은 경공업공장들의 생산활동에서 필수적인 원료로 된다. 강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들과 당과류제품들, 고기, 알, 꿀, 과일가공품들과 장절임을 비롯한 갖가지 식료가공제품들, 비단천과 초콜렛 등 수많은 경공업제품생산이 농업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어있다. 농업전선은 인민소비품생산을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선이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여기고있다. 하기에 사회주의조국의 전초선을 지켜신 인민군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먹는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여야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킬수 있다.

지력갱생으로 알곡을 최대로 증산하여 인민생활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다.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유물이다.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해주시려고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포전길을 걸으신분은 우리 수령님이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굴의 강행군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애민현신의 로정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을 전진에서 지휘하고계신다.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에 늘어난 알곡증산으로 보답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전사, 제자들, 장군님의 혁명전사들의 본분이며 도리이다.

다음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아버지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삼가 드려야 한다.

농업근로자들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전선을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으로 여기고 알곡증산을 위하여 총동원하여야 할것이다.

김성룡

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고무해 주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군인들의 학부형이 되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친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일별하시며 그러나 오늘은 내가 부대 군인들의 학부형이 된셈입니다 라고 단정히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의 학부형!

우리 장군님께서 군인들을 얼마나 친자처럼 생각하시며 마음에 두고계시었으면 자신을 학부형에 비기시였으랴.

오늘 우리 인민군대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옹양떨치고 있는것은 이렇듯 혁명투쟁의 최고수위에 백두의 선군명장을 위대한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본사기자 김동철



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본사기자 김영남 동지께를 잘 짓기 위한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올해 총공작전에 펼쳐나선 중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장도리가 아주 좋다. 올해전투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첫 공정인 공동사설 학습을 진행하는것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들은 공동사설 학습을 맡고대려 하나의 전투로 여기고 열매게 진행하고있을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눈중에 해아 할 일감들을 혁신적으로, 장발적으로 찾아내고있다. 공동사설에는 인민생활향상대전전의 성과어부는 지휘원들, 일군들에게 달려있다고 지적되어있다. 온 구역에 차넘치는 공동사설 학습기풍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이 학습을 실천할것을 힘있게 격려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습과정의 끝사

중심을 어디에 두었는가

중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상수양과정으로, 혁명파업수행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사설 학습에서도 책임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책임일군들이 공동사설 학습에서 앞장설뿐 아니라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얼마나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는가에 따라 매개 단위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동사설을 학습하는 폭과 심도가 적지 않게 좌우된다. 공동사설이 발표된 첫날부터 공동사설 학습이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커다란 관심을 돌리는 이곳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실례를 들어보자.

야 할 새 일감들을 얼마나 정확히 찾아냈는가 하는 데 더욱 주목하였다. 구역당책임일군들은 위원회 비서 김철남동무는 그들의 학습을 혁명파업실천과 보다 밀접히 결부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실천을 떠난 공동사설 학습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일군들의 공동사설 학습이 인민생활향상대전이라는 올해의 거창한 실천에 철저히 부응되고 지향되도록 하자. 이러한 사색끝에 구역당 책임일군은 일군들의 공동사설 학습에 대한 요구성을 더한층 높여나갔다. 말하자면 공동사설 학습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학습평가의 기준을 공동사설을 이따약한데 기초하여 년간에 해

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부장 윤성진동무를 비롯한 선진선동무의 일군들은 지난해에 평양수직연필공장의 현대화공사를 적극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 어떻게 하면 공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학습을 진지하게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깨우치고 불리없이, 중정감화의 방법을 널리 활용해나갈 새로운 일감들을 찾아내게 되었다. 이렇게 공동사설 학습을 현실과 결부하여 심화시켜나가기 그 인식교양적의가 큰것은 물론 혁신적인 일감들을 많이 찾아내었으므로 실효과 큰 학습으로 되게 되었다. 학습의 기본에 충실하고 일군들의 공동사설 학습을 옮겨 이끌어가는 이곳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분반을만 하였다. 본사기자 리정수

김책시 탄소협동농장에서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파업과 김철의 로동계급이 보낸 편지를 받아안은 김책시 탄소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모판자재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작업반마다에 규모있게 쌓여있는 비닐박막과 나래들... 이것을 보고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농사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한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새해농사차비를 앞두고 농장일군들은 사색을 거듭하였다. 무슨 일에서나 중심과 지렛대가 있고 올바른 방법이 있어야 하는것을 성과가 거둘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일군들은 지난해에 비해 농사에서 앞장섰던 제2작업반에 내려가서로 하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일군들은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 초급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에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실한 모를 키운것이 농사에서 성과가 거둘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였다. 특히 나래를 비롯한 모판자재를 넉넉히 마련한것이 모판의 온도를 보장하는데서 큰 공헌을 하였는것이다. 지렛대를 아무리 높인다 해도 실한 모를 키우지 못하면 용담한 수출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이 초급일군들의 일치한 견해

었다. 농장에서는 이 작업반의 경험 받아들이 모판자재준비에 보다 큰 힘을 넣기로 하였다. 작업반, 분조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농사에 필요한 모판자재량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특히 모판나래를 질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기로 하였다. 다음날부터 작업반에서 모판나래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제2작업반원들이 신심에 넘쳐 헌신적 창조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분조별사회화경쟁을 조직하여 작업반원들의 열의를 적극 불리워왔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작업반원들에게 바람막이바자를 든듯 쳐놓고 모판안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실한 모를 안전하게 키워낸 지난해의 농사과정을 되새겨주면서 그들이 모판나래생산에 적극 다그쳐주었다. 그리고 모판나래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알려주어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여주었다. 제1작업반원들도 모판자재준비를 실속있게 해나갔다. 이미전에 모판자재를 번듯하게 닦아놓은 이곳 작업반원들은 아무 일이나 사건 준비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나래생산에 일정에획대로 내밀었다. 올해의 총공작전에서 승리자가 될 각오로 펼쳐나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정으로 모판자재준비는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분위기를 고조시켜

양덕군당위원회 일군들 힘있게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고 보았다. 군당위원회는 책임일군들부터 공동사설을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도록 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공동사설을 접하자 남먼저 그 내용을 깊이있게 학습하고 일군들앞에서 해설강의를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공동사설 학습과정이 오늘의 인민생활향상대전전에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나선 구체적인 투쟁과업을 명확히 하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목표를 높이 내세우며 현실성있는 방법론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고있다. 군당위원회는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학습반들에서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목표와 실천방도를 토론과 논쟁의 방법으로 심화시켜나간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최시흥

첫 공정으로 들어가고

은천군 마두리당위원회 일군들 구 하나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더 깊이 새겨줄수 있다면 더침바람을 세워두 무방하다는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남이 부름을 받아오자 리당위원회 일군들은 준비한 직관들을 가지고 담당 한 작업반들에 일제히 내려갔다. 공동사설의 체계와 기본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만든 직관들은 즉시에 실적을 나타냈다. 설참이던 약속이라도 한듯 직관들앞에 모여와 토론과 논쟁을 벌리는 농장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다. 직관전전을 실효성있게 조직한것은 은 농장에 공동사설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켰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군들이 학습강사가 되어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공동사설에 담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새겨주기 위한 학습지도도 주동적으로 짜고들도록 하였다. 리당비서 조석준동무는 새해 첫 전투를 농장원들과 함께 개바다파기전투장에서 진행하였다. 리당위원은 학습지도도 종전처럼 농장원들속에 공동사설을 읽어주고 거기에 담긴 당의 사상을 원리적으로

실속있게

으로 인식시키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혁명실천의 무기로 삼게 할 목적에 우리 농장과 우리 작업반, 우리 분조, 나 자신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습도전에 참가하여 한가지 이상의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도록 이끌었다. 확실히 이런 방법은 농장원들을 계발시켰다. 혁신적인 안들이 쏟아져나와 작업능률은 훨씬 높아졌다. 학습도론이 끝난 후 하루동안에만도 1 0 0 0의 거품을 생산하는 성과가 이룩된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개바다파기는 제4작업반과 제10작업반 농장원들이 일하는 전투장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판리위원장 홍금선동무는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올해공동사설에서 왜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고 하였는가를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었다. 학습담화의 방법으로 격심없이 진행된 이날의 학습은 농장원들의 심정에 불을 달아주었다. 하루실적이 예상밖으로 뛰어올랐다. 학습은 모든 사업의 첫 공정이다. 리당위원회 일군들은 이것을 실천을 통하여 다시금 체득하였다. 본사기자 손영희

일터에 넘치는 학습열풍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의 공동사설 학습열풍이 뜨겁다.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에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해부터 생산정착의 동음을 일으켜나가기 위해 아글라를 애쓰고있는 이들에 있어서 공동사설을 학습할 통시간이란 마르었다. 하기에 그들은 출퇴근길과 아침모임시간 그리고 작업의 열참을 학습시간으로 정하였다. 초급당비서 림성국동무는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공동사설 학습을 보다 실속있게 짜고들며 학습열풍을

신문을 통한 교양사업 활발

연안군 도남리당위원회에서 당에 걸리는 기사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위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하는 실적을 올려다. 이날 내각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이곳 농장들의 논과 남새밭에 1 2 0 0여 t의 거름도 실어내고 흙갈이작업도 하였다. 새해 첫 금요로동에 펼쳐나선 내각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투쟁은 시주분 농촌의 농업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글 특파기자 최재남 사진 본사기자 김광희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리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새해 첫 금요로동을 농장벌에서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킬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내각과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새해 첫 금요로동을 시주분 농촌들에서 진행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를 앞장세우고 완강한 투지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결사관철을 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1월 7일 아침, 김일성광장에는 내각과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할 뜨거운 마음을 안고 성의껏 마련한 도시기를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줄지어섰다. 붉은기 휘날리는 자동차들마다는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고무추동하는 힘 있는 출발선이 나타났었다. 광장에 모인 내각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의 열광마다는 새해 첫 금요로동에 참가하여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갈 불타는 결의가 어리어있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켜갈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에 펼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조직

올해공동사설을 받들고 다시한번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청년전위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드높은 자존심으로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피려야 합니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에 응호하는 청년전위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의 결기모임이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높이



고보고자 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올해공동사설과 김책로동계급의 소조마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새해의 대고조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올해 총공작전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의 청년들이 생산하는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며 1차소비품을 비롯하여 전반적소비품생산에 확대되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는데 앞장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 경공업부문의 CNC화를 적극 실현하며 소비품의 가치를 높이고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청년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식단, 전력, 금속,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청년들은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부문의 청년들은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틀튼히 틀어쥐고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에 비약적으로 높이는데 이바지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당의 최첨단물과사상을 구현하여 경공업과 인민경제발전에서 기여할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내놓을데 대하여 말하였다. 청년들은 인민군대에 적극 편입하여 선군의 우리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하며 국민일치의 전투적기풍을 높이 발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로동계급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강성대국건설의 개척자로 내세워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의 포성을 세차게 울릴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수행결사투쟁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와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는 전투적주호를 높이 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인민경제 선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로동계급과 직

[조선중앙통신]





